

광양시, '현장 소통의 날' 운영... 시민 목소리 현장에서 청취

정인화 광양시장, 시민 불편 해소와 관광 경쟁력 향상 위해 사업장 직접 점검

광양시는 8월 19일 8월 중 제2차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해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고 민원 현장을 방문하며 시민들과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날 ▲중동근린공원 무장애도시설 조성사업 현장 ▲아이언아트파크 후보 대상지(2곳) ▲옥동 솔밭삼양 군도 11호선 안전대책 검토 현장을 차례로 살폈다.

첫 번째 일정으로 중동 1673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중동근린공원 무장애도시설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 약자의 불편 요소를 제거하고, 시설 정비와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 시장은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본 뒤 ▲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시설 외부 배

수를 디자인형 그레이팅으로 교체 ▲수목 생육을 해치지 않으면서 보행 동선을 고려한 맨발 산책로 조성 ▲생육 불량 수목 교체 및 앞면벽 벤치 설치 등을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이어 정 시장은 아이언아트파크(가칭) 후보 대상지를 방문했다. 시는 철(아이언)과 예술(아트)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 테마로 차별화된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아이언아트시티 관광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착수한 본 용역은 관광브랜드 구축과 아이언아트파크(가칭) 조성 등을 담고 있으며, 이날은 아이언아트파크(가칭) 대상지 선정을 위해 동측 배후단지 일원의 후보지 2곳을 점검했다.

마지막 일정으로는 옥동 솔밭삼 양 군도 11호선 안전대책 검토 현장을 찾았다. 이곳은 운전자 과속과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인한 사고가 잦아 도로 선형 개량과 교



동안전 시설물 설치가 건의된 곳이다.

정 시장은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우선 중앙선 침범 추위를 막기 위해 차선 규제봉을 설치했으며, 과속 방지를 위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

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생활 속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소통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매월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해 주요 사업장과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제철 영암 무화과, 새벽 로켓 배송 중

제철을 맞은 영암 무화과를 로켓 배송으로 새벽에 만나볼 수 있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 무화과 생산자단체 영암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로코노미(Local Economy) 협업사업'으로 이달 20일부터 무화과를 전국에 배송하고 있는 것.

온라인 '쿠팡 로켓프레시'에서 오후 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새벽에 영암 농가에서 수확된 무화과가 오전 7시 전까지 주문한 소비자의 문 앞에 배송된다.

영암군과 공동사업법인은 이런 산지 직송 새벽 배송 유통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쿠팡 측과 만나 협의를 이끌어냈다.

인간이 재배한 가장 오래된 과일로 알려진 무화과는 8~11월 재배되고, 8월 말인 요즘이 과실의 외형도 좋아

고 당도도 높아지는 제철이다.

특히, 우리나라 첫 재배지이고, 전국 생산량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영암의 무화과는, 뛰어난 당도와 톡톡 터지는 식감으로 대표 여름 과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무엇보다 무화과 성장의 최적 환경에서 재배돼 염증 억제, 장 건강 개선 효과가 높고, 여성 피부미용에도 좋고 알려져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여름의 특별한 맛 영암 무화과를 이제 새벽에 산지 직송으로 전국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명품 무화과로 더 전국의 가정이 더 풍성하고 건강한 식탁을 차리도록 영암군이 돕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2025년 영암 무화과 축제'를 9/5~7일 삼호읍 농업박물관 일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장성군이 임신부부터 난임부부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맘케어' 시범사업이다. '스마트 위치'와 '스마트 체중계'를 이용해 산모의 심박수, 수면 주기, 스트레스, 체성분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 상담 등을 통해 산모와 태아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위험 임신부나 건강이 취약한 산모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장성군, 임신·출산 가정에 '든든한 안전망' 제공

'스마트 맘케어', 출생기분수당 지급...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 지원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문화가정 임신·출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마음 더하기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소규모 그룹 소통 △심리·정서적 지지 강화 △육아정보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육

아 환경을 조성한다.

올해 1월부터는 '출생기분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18살이 될 때까지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영유아 전담 간호사가 방문해 산모와 아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도 시행 중이다.

9월부터는 신규사업인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 지원'도 시작한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한 난임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는 부부에게 이동 경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임신·출산 가정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전남 구례군 농·축협과 광양시 농업이 상호 기부를 통해 지자체 간 상생협력과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실현하였다.

이번 상호 기부는 광양시의 동광양농협과 다압농협, 구례군의 구례농협, 산동농협, 구례축협이 참여했으며, 각 550만 원씩을 상호 기탁하였다.

구례·광양 농·축협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로 상생협력 실천

상호기부 통한 지역 상생발전과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실천

기탁식은 지난 18일 구례군청 군수실에서 진행됐으며, 김순호 구례군수를 비롯하여 송해경 농협중앙회 구례군지부장, 허재근 산동농협 조합장, 최정범 구례축협 조

합장, 박명규 구례농협상임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광양 지역에서는 이두식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장, 이도성 동광양농협 조합장, 김중연 다압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하

였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구례군에서는 하반기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을 진행하는 등 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구례/한정호 기자**

장흥군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민·관·군 합동 훈련인 '2025년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비태세를 검토·보완하고 전시 업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범국가적 비상대비 훈련이다.

올해 장흥군 을지연습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실시되었다.

군청과 유관기관 직원 등 14개 기관

장흥군, '통합 대응역량 강화' 을지연습 성공적 마무리

14개 기관 1,000여명이 참여,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1,000여 명이 참여해 실제훈련, 비상소집,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상황별 전시 현안 토의 등 실제 전시에 준하는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19일 오후에는 군청 청사 일원에서 화재·테러 진압, 초동조치, 피해 복구 등을 가정한 실제훈련이 실시되었다.

훈련에는 장흥군을 비롯해 육군 제

8539부대 3대대, 장흥경찰서, 장흥소방서 등 4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에는 소방차·구급차·경찰차 등 장비 10여 대와 인원 100여 명이 투입되어 합동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또한 20일에는 군민회관을 비롯한 전 군민 대상 민방공 대피훈련이 진행되어 주민들이 공습 상황에 대비한 대피 절차

를 직접 체험했다.

21일 최종일에는 강평보고회를 통해 훈련 전 과정을 점검하고 우수사례와 개선 사항을 공유하면서 훈련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김성 군수는 "이번 을지연습에서는 실천과 같은 상황 조성을 통해 민·관·군·경이 함께 협력하고, 군민이 직접 참여해 위기 대응 절차를 숙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제공**

무안군, 계절노동자·농가 한마음대회, 8월 29일 개최

외국인 계절노동자와 지역 농가가 소통하는 화합의 장 마련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에 따르면, 오는 29일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제2회 무안군 계절노동자·농가 한마음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등지에서 온 외국인 계절노동자와 지역 농가, 결혼이민자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외국인계절노동자 무안군연합회(회장 강행원)가 주최하고 무안군 가족센터와 무안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협업해 준비했다.

세부 프로그램은 관내 상가 음식을 활용한 먹거리와 ▲오징어게임의 명랑운동회, ▲외국인 계절노동자와 지역 농가 소통의 시간, ▲K팝 EDM 파티 등으로 참여

자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한마음대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하는 강행원 회장은, "이번 대회는 외국인 노동자와 지역 농가가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농사에 실 틈이 없겠지만, 외국인 노동자와 공존하는 농촌의 미래를 위해 지역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에서는 올해 MOU 체결과 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을 통해 1,000여 명의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활동 중이며, 내년에는 MOU 체결 국가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할 계획이다. **/무안군 제공**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